

대주ENT(주)



1989년 설립된 대주ENT(주)(대표 박광수)는 냉·난방용 단열이중보온관(PIP)을 비롯해 상수도용, 냉매용 이중보온관 등을 생산하는 회사다. 충남 공주의 7,500평 부지 공장에 연간 직관 1만 5천 톤, 이형관 4천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또 안산시 시화공단 내에 엘리베이터 가이드레일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월 6백 톤, 연간 7천 톤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굴지의 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 동양엘리베이터, 슌들러 엘리베이터 등에 전량 납품하고 있다.

대주ENT(주)는 국내 최초로 지하매설용 스틸 보온관 SIS(Steel In Steel)를 독일 업체와 기술 제휴를 통해 대전 3·4공단 열배관공사(에너지관리공단)에 납품했다. 또 업계 최초로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주관하는 국제입찰에서 몽골 울란바트로 개선공사 중 상수도 개선사업을 수주, 이중보온관을 납품했다. 지난 2002년 2월에는 중국 심양에 진출, 심양구월보온관유한공사를 설립해 한층 진일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

고 있다.

대주ENT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종합에너지(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SH공사, GS POWER(주) 등에 제품을 공급하여 품질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향상은 물론 2006년 말 기계설비공업업을 시작했다. 2007년 4월 대한건설설비협회 인천지회 다실적상을 수상하고 현재는 단열이중보온관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까지 책임질 수 있는 토털 서비스망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주ENT는 2000년 7월에 KSA 9001, ISO 9001/14001인증을 획득, 품질인증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12월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2001년 7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GQ:Good Quality)인증을 획득하여 대외적인 공신력도 갖추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에 부응하고자 2007년 1월 ESCO로 등록 하였으며 향후 CES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진출하고자 임직원 모두 노력하고 있다.